

용인의 푸른 숨소리

이 경



용인문화원

www.ycc50.org

여

백

용인의 푸른 숨소리

이 경



용인문화원

www.ycc50.org

여

백

용인의 푸른 숨소리(용인시의 사랑시)

용인의 푸른 숨소리 들린다
 빛들의 잔치 열리는 날
 자유의 하늘엔
 꿩들의 힘찬 기상
 세계를 향해
 색색의 꿈 나래를 펴고
 용인 뜰의 울려 퍼지는 팡파르
 별들의 눈부신 광채
 전나무 우거진 산과 들
 일제히 환호하며 일어나
 세계속에 우뚝 서는 용인시(龍仁市)

보물 가득한 유적지엔
 민족의 얼이 담긴
 조상들의 뛰어난 지혜와 숨씨
 세계 눈과 귀를 모으고
 분홍 철쭉 활짝 핀 대지엔
 봄의 웃음들로 가득찬 시민
 자연과 미래 첨단 of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새벽이 아침 햇살 몰고 오는 이땅엔
 천년의 눈부신 역사
 길이 이끌고 갈 용인 시민의 기백
 일어나 세계속의 빛을 발하고 있다

여

백

발간사

용인문화원장 홍재구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많은 시련과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풍요로운 생활을 내핍과 근검절약의 생활로 전환해야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새로운 의식과 자세로 슬기롭게 미래를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를 문화를 통한 건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생활로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문화원에서 용인의 지명지지를 소재로 한 용인의 푸른 숨소리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용인은 산자수명하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오랜 역사 속에 조상의 얼이 스며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인구증가와 개발로 우리용인의 아름다운 정서를 잘 모르는 시민에게 우리고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중한 마음의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책자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으신 시인 이 경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용인의 아름다움과 유서 깊은 우리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모두 함께 일구어 나가기를 바라며, 발간사에 가름합니다.

2005. 3.





안정속의 열린시정 도약하는 푸른용인

- 자 치 화 합
- 지 식 경 제
- 자 연 친 화
- 문 화 일 류



심벌마크의 뜻

- 중앙의 역동적인 타원은 용인시가 첨단과 자연, 도농 복합시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미래비전을 상징.
- 심벌의 상부점은 미래지향적인 첨단도시의 용인을 상징.
- 심벌 하부 나뭇잎은 깨끗한 자연환경의 청정시 용인을 상징.



- 용인시의 마스코트는 미래 첨단도시와 자연 청정도시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소년의 이미지와 용인시의 상징화인 철쭉을 의인화 한 것이다.



핑

- 금속광택의 붉은 자갈색은 깊은 역사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뜻함.
- 초봄 수컷을 울음은 생동하는 힘찬 기상을 뜻함.
- 도시, 공원, 농어촌, 구릉, 산림 어느곳에서도 사는것은 강인한 시민의 생활력을 의미함.



전나무

- 고요하게 사색하는 모습은 충효와 신의를 생활신조로 살아온 용인인(人)을 뜻함.
- 장엄한 기풍은 외세의 침입에 승리한 기상을 뜻함.
- 뿌리의 심근성은 시민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고 가시가 힘차게 꺾꺾 뺨음은 날로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뜻함.
- 침엽수로 잎이 선형임은 시민의 질서 의식과 무한한 발전의 요지를 뜻함.



분홍철쭉

- 임지능선상에서 성장함은 시민의 강한 생활력을 보여줌.
- 새 봄에 개화되는 것은 근면성을 보여줌.
- 연분홍색 화관은 시민의 따뜻한 마음씨임.
- 은은한 향기는 민주적 시민의 정신임.

애 향 가

용인시의 노래입니다.

(민요조로)

유인상 창안 / 유달영 작사 / 조성지 작곡



열린시정, 열린마음 “용인”

우리 용인시는 예로부터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중절의 고장으로 손꼽히는 도시이다. 이곳에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더욱 쾌적하고 행복한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슬기를 모아 여기에 큰뜻을 펼친다.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민의 무궁한 번영과 영광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타는 곳 Tracks 樂車場 오리·선릉방면 To Ori 梧里·宜陵



보정역 개통식

YONG IN CITY



▲ 서양화교실 전시



▲ 청소년 민속예술제





정월보름 달맞이 행사



정월보름 동해놀이 달집태우기



정월보름 지신밧기



포은문화제 | 2004. 6. 12



한국포크송 빅쇼



한복맵시대회





가실벚꽃 | 2004. 4. 19



구성읍 종리 신신제



문화원 합창단 정기공연



별이 쏟아지는 용인의 숲길을 걸으며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강남에서 20여년간 살다가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맑은 용인이 그리워서 이사를 오게 됐다.

용인에는 문화재도 많고 유적지도 많다.

용인지명 사진을 보다가 내 고장의 자랑을 하고 싶었고 세계적 유산이 많은 용인이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부심으로 뿌리를 찾아주고 긍지와 보람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속에 길은 땅위에 있는 길만이 아니라 인생의 길, 즉 삶의 이미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한 마을의 대표적 길들을 연마다 그 고장의 역사적 배경 특색 또는 이미지적 시로 엮었다.

강남의 길을 600여편을 집필하고 이번이 두 번째로 전국 도서관 관공서에 배포되었다. 區나 市로 역사적 배경을 넣고 시 전체를 집필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일찍이 없던 일이 아닌가 싶다.

이 시문집은 용인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역사적으로 길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시집을 만들게 해준 용인 문화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5. 3

이 경

매화꽃길
기흥읍(器興邑)



공세리 5층 석탑

기흥읍(器興邑)

경부고속도로의 중심 심장부
힘찬 맥박이 아침을 깨운다

기흥의 첫 자와 구흥의 끝자를 합쳐
일구어 낸 이름
하나의 단합이 크게 돋보이는 곳

용인현 관문 처음 십리 끝이 25리
영동고속도로 교차하는 신갈 인터체인지엔
한국 민속, 경기 박물관이 있어
한국의 옛 정서 꿈꾸는 고장

신갈 저수지 은빛의 물고기 떼
낙시꾼이 성시를 이루니
강태공도 부럽지 않은 천하의 요지로다

저, 용인의 뛰어난 인재들
경희대, 강남대 루터의 신학도
밤낮 불 밝혀 연구하니
세계인과 어깨를 나란히 겨누고

화강암의 튼튼한 기반위에 서 있는
고려 중기의 5층 석탑
기흥의 등대 길을 널리 안내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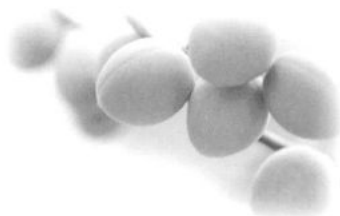
고매리(古梅里)

1914년의 나이
공세동과 고매동 합쳐
부부가 되었네

지형의 생김이
梅花落地形 그래서 너의 이름
고매리라 하였네

오늘도 고맷골 숲엔
골안골 냇물 소리
소고나뭇골 물소리와 합창을 할때
매봉재산 산자락 우두둑
기지개 켜고 원고매 으뜸 마을 체조할 때
천가대 들에선 휘파람 새
매화 떨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하늘로 날아가네



공세리(貢稅里)

이 마을엔 약초인 구절초 자생한 고장
마을 사람들의 생업이 되고
나라에 세공 받치는 골이라 하여
공세리 되었네

강가 나뭇굴 풍요로운 약초마을
질병을 막아내는 약초 있어
기쁨이 오고가는 경사의 마을
기와집 있는 기와마을 부자마을
바람굴에 세게 불어오는 바람도
하늘 오르내리며 춤추는 꽃의 고장
고려중기 오층석탑 문화재는
한층 공세리 마을 빛내주네



구갈리(舊葛里)

하관곡, 내기 갈곡 합쳐
신갈의 반대적 개념
구갈이라 하였네

머얼리 산자락에
아침햇살 눈부신데
바람이 불어와도
구갈은 태연하게 앉아
헛기침만 하누나

농서리(農書里)

오곡백과 노란 물결
넘실대는 곡식파도
허수아비 농가에 서서 미소질 때
파도타고 오는 산타 할아버지
일년 내내 익은 곡식
밭을 사고 논을 사서
자손대대 농사짓는
풍요로운 농서리 마을
귀뚜라미 우는 계절
감자 옥수수 삶아
달밤에 명석 펴고
오고가던 옛 이야기
가족사랑 자녀사랑
오순도순 살아가는
정이 많은 농서리 마을



보라리(甫羅里)

보평, 통산, 라곡, 방곡이 합쳐
보라리 되었으니 단결된 마을
고목나무 보라매 살고 있어
보라리라 불렀다는 속설도 있네

궁뜰엔 사시사철 녹색의 장원 펼쳐 있고
조선 중종때 유생 방은 조광자 형제 살던 마을

보라리엔 민속마을 있어
세계인의 눈과 귀가 모여 있는 고장

아름다운 이름처럼 용인의 손꼽히는 마을
민속촌 한바퀴 돌고 나면
우리의 고유 생활 문화 알 수 있는
정서가 어려 있는 곳
추억을 꿈꾸게 하는 보라리 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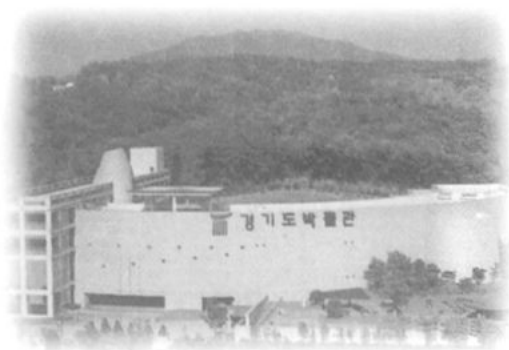


상갈리(上葛里)

금화, 쇠푹이, 중갈천 합하여 상갈리
금화 쇠푹이 가장 큰 마을
쇠가 빛나니 地像이 금반형
상갈리는 삼지창되어
돈을 굶어 모으니
돈의 화려한 위력
부자의 마을일세

용매산 자락엔
용이 하늘로 오를 때
임신한 여성이 보아 하늘로 떨어진 산
경기도 박물관 있어
현대 화려한 금은보화

용이 승천한 마을바다
행운이 오는 마을



서천리(書川里)

서천리에 아침이 오면
흰옷 입은
가장 정결한 물빛으로
선비들이 손을 씻던 순수
흐르는 냇가에 모여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
흐르는 물소리와 책 읽는 소리
합하여 밤을 새우니
달 한 개 물속에 빠져
파랗게 웃는 너의 얼굴

갈증난 내게 다가와
영혼의 샘으로
가득 넘치고 있어
태초에 물길로 돌아가고 싶어라



신갈리(新葛里)

용인의 심장부
신갈 인터체인지

신촌, 미동, 갈천, 상촌, 상관곡리 합쳐
신갈 되었네
작은 마을 큰마을 모여
하나 되었으니

용인의 심장답게
나누며 살자

주고 나누면 새세상 되지만
나눔이 없는 곳에
기쁨도 없고 슬픔만 있으니

심장이 있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까지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



영덕리(靈德里)

덕암산 옷자락은 사시사철 푸르르고
돌고개로 가는 길은
오동나무 즐비하게
바람 따라 춤을 춘다

잔다리 밑에 흐르는 강줄기
배에 오르던 잔교
옛 사람들 간데 없고
용인 이씨 이중인의 묘 하나
영덕리 지키고 있네

지곡리(芝谷里)

골 깊은 지곡엔
지초(芝草)가 자생하니
집집마다 풍요로다

기와집은 음애 이자 선생의 사당
용인 향토유적 문화재 있고
조선 초기 백자요업지로
천주교인들의 문화재 숨씨 숨쉬던 곳

중동엔 고려말 공신 김달성의 묘 있고
두암산 기슭에 사은정(四隱亭) 있어
정암, 방은, 희곡, 음애의 四賢이
장수강학 하며
농사짓고, 나무하고, 낚시와 나물캐는
네가지 낙을 즐기며 회동하던 곳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명성을 높이네



하갈리(下葛里)

서남쪽 청명산 바라보니
점촌말, 움말, 뱀뿌리, 비산동 있고
유유히 흐르는 냇가
츄닝쿨 닮아
갈천이라 하였다네

하갈리 마을 형상은
가재와 같다 하여 가부동이라 하였으니
예전에 이름 또한
역사만큼 좋은 고장일세

솔을 만들던 이고장은
인생의 중요한 삶을
실천한 고장일세

가을이 되면 갈밭에 부는 서걱이는 바람소리
돌고개 따라 부딪고
뱀처럼 생긴 뱀뿌리에 부딪는 바람소리
불당골 목탁소리와 함께
하갈리 아침 동이 튼다



여

백

연꽃길
구성읍



용인향교

구성읍

고구려 구성현에서 유래된
용인시 최초의 행정지명
백제때는 멸오(滅烏)
신라 경덕왕때 거서(巨黍)를 두고
현령으로 승격한 화려한 이름

현대는 영동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용인의 심장부
경찰대학, 법무 연수원, 전철기지창등
이름만큼 화려한 현대를 이끌 기지창이 있고

장육진 화백의 고택과
향교의 보물 오명항 초상
인현왕후와 인목대비의 친정묘 있고
동백리에는 터키군 참전 기념비 있다

기반암은 화강암, 호상편마암, 각섬석이 있고
성산 향수산의 높은 기상
심장부를 떠받고 있고
오산천의 흐르는 물줄기
현대를 이끌며 흐르고 있다



동백리(東柏里)

임진왜란 동쪽
관군이 진을 쳤던 곳

할미산성
깊고 맑은 샘물있어
지나가던 임금 물 마셨던 곳
임금이 잡수셨던 우물이라 하여
어수물(禦水一)이라 하였으니

조선 세조, 성종 임금
여주 영릉에 참배 갈 때 머물던 곳

하늘과 땅, 바람은 여전한데
옛 선인 간데 없네

동백리 향린동산엔
깊은 산속 우거진 숲
기독교인, 교수, 의사들이
향기롭고 아름답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꿈꾸는 전원마을



마북리 (麻北里)

마북리 마을엔
구교동 옛 터전 용인 향교 있었고
세갈리 갈림길 삼거리엔
획주사지(劃珠寺地) 용화전 미륵당과
조선시대 용인현령의 송덕비군과
마곡엔 마운사(麻雲寺) 절 있었네

고려시대 마북리 석탑
문화재로 남아있는데
물방아 돌리던 선인들은
어데가고 구름만 흐르는가

을사조약 반대 순국한 충정공
민영환 묘인 이승만의 친필있고
경기도 문화재와 한국미술관
연안부부인 전씨묘도 남아있어
용인의 역사를 한몸에 지닌 마북리 마을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용암바위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천년을 묵묵히 하늘보며 앉아있네



보정리(寶亭里)

소실봉에 아침햇살
보정리 마을 비추니
정자에 앉아 책 읽던 선비
자연에 도취되어 잠들어 꿈을 꾸니
연원마을 연못의 연꽃 가득 피어 있어
그꽃을 따라다 연못에 빠져 버렸네

조선초기 분청사기 가마터 있고
연원마을 공동묘지
청동기 선사유물 마제 석기 발견되니
보정리의 보화로다
용인의 보화로다



상하리(上下里)

상하리 갈곡동엔
침이 많아 갈곡일세
침먹고 산에 누어
하늘을 쳐다보면
세상은 모두 내것일세

민재궁 마을 북쪽
풍창부부인 조씨의 묘
인현왕후 생모 잠든 곳

수원동 장수마을
수명장수하여 수원동(壽院洞) 되었다가
갈천(葛川)지류인 수원천의 원류지
水源洞이 壽院洞 되었다네

청동기 시대 유물 지식묘
바람부나 눈이오나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천년의 세월 바람막아
돌이 되어 앉아있네

언남리(彦南里)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마을
용인 향교 앞을 지나갈 때
모두 말에서 내리도록 하였던 하마비

이제는 덕망 높았던 선비도
이 땅을 호령하던 임금도

세월의 뒤안길에서
서걱이는 갈대소리도 없이
잠들어 있는 침묵
죽음은 말이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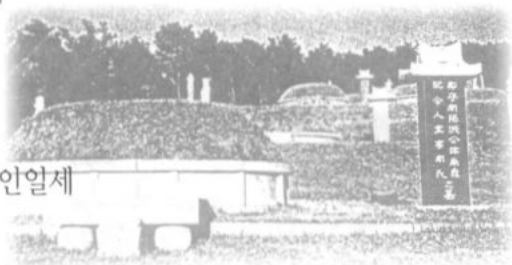
중리(中里)

구성면 중리 산 선산 자락 16
내려앉은 작은 능선엔
남양 홍씨 시정공파 무관모역
위풍당당한 옛모습
자연의 나무도 고개 숙였네

용인묘역 개시자 입시조인 홍제(洪濩)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에 채록되어 대호군 되고
증손자 하창(夏昌)은 어모장군
하창의 아우 하명(夏明)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황해도 병마 절도사
함경, 전라, 충청 삼도 통제사가 되고
무신의 가문 나라의 큰 공을 세우니
가문에 영광 나라의 충신일세

오늘날 그들의 후손
옛 선조 본을 받아
문신, 무신으로 이름 높이니
옛 선조 기백을 이어 받았네

고장마다 뜻이 깊은 마을
용인시는 우리의 보고 창고
푸르게 일어서는 잘사는 용인일세



청덕리(淸德里)

〈물푸레 나무〉

수청동 맑은 물에
물푸레나무 하늘 떠받고 서서

청청한 물가 발을 담고
무슨 생각 그리하나

큰 세력 세가닥 뿌리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과거, 현재, 미래, 지혜의 샘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힘
뛰어난 너는
머리엔 세계를 바라보는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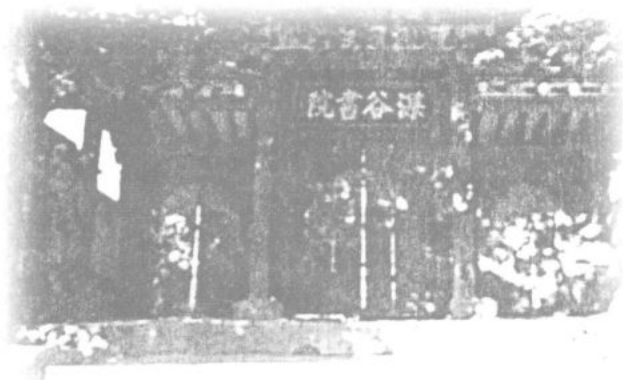
5월의 꽃을 피어
열매 맺어
껍질과 열매, 나무까지
인간을 위해 두고 가는 너는
이땅의 고귀한 파수꾼



여

백

배꽃길
수지읍(水枝邑)



수지읍(水枝邑)

광고산 위에 떠오른 햇덩이
수지의 아침 찬란히 비추네

고종 32년 불리워진 수지
명성왕후 나라사랑
별이 되어 이땅 찬란히 비추네

편마암 화강암의 푸른 고장
돌담길 집집마다
배나무 가득심어
배나무골 숲을 이루니
샘솟는 샘말의 맑은 물은
홍에 겨워 줄줄 흐르고
비옥한 이땅은
산 좋고 물맑아
장사가 나온 고장

광고산에 험준한 정기
보물 9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와
조광조, 황림, 이종무 이완대장 묘와
심곡서원 있어 국보적 문화재 겸비한 마을일세



고기리(古基里)

곡현마을 구불구불 굽은길
집집마다 돌담 쌓고
담장 주변에 배나무 심어
숲을 이루니
찾는 사람들 배나무 골이라 불렀다네
맑은 물 샘솟는 깊은 광고산 자락
호랑이도 많고 힘센 장사가 나왔던
험준한 산속에 무성한 잎새들
협곡마다 바람이 놀다간 자리

붉게 물든 단풍나무 하나
외롭게 서서 얼굴을 붉히네



동천리(東川里)

동막과 원천이 만나
동천리가 되었네
창포나 난과 같은 손초가 자생하니
나환자 자활촌 되어
모두 건강 되찾으니
가내 공업 가구단지로
현대식 발전되어
부자마을 복받은 마을일세



상현리(上峴里)

효정원년 심곡서원 문화재
옛 선비 글 읽던 소리
들리는 듯 아련하니
지혜와 지식의 뛰어난
인재의 고장일세

정암선생 심은 노거수
푸르게 우거져 있고
조광조 묘와 하마비
역사 문화재로 남은
보람의 고장일세

길마재길 독바위(옹암)
향아리 닳아 옹암이니
양지바른 푸른 숲에
글 읽는 선비모습
천년의 세월 고고하게
백자처럼 홀로앉아
푸른 하늘 마음비취
독야 청청 하리라

성불사의 풍경소리
바람에 흔들리고
푸른 초원 솔개뜰엔
하늘 나는 새들의 노래소리

서원 초, 중, 고 고장엔
평화의 푸른 꿈 캐는
대한의 아들 딸
글 읽는 소리
하늘까지 들리니
꿈꾸는 내고장
상현동 일깨워
세계인의 머리 되었네



성복리(星福里)

성주 이씨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루어 집성촌 되었네

이씨들이 복을 받게 되라는 뜻
盛福이 星福으로 되었다네

동쪽엔 양지말
서북쪽 대원사 풍경소리
햇살 따뜻한 영혼의 만남
강처럼 흐르니
복이 가득한 성복리 마을일세

신봉리(新鳳里)

光教山을 서봉산이라 하여
봉황이 깃들었던
상상의 전설 남아있는 곳
광고산 중턱엔
현오국사탑비가 있고
구한국시대 남양홍씨가
대성을 이루던 마을
형제봉 아래
키큰 느티나무
푸르게 일어서서
하늘을 받들고 있네

광고산 산줄기
용마등 전설있어
한국, 중국, 일본 호령할 인물 난다하여
일제 강점기 일인들이
이 줄기 혈을 끊자
붉은피 흘러 개울을 이루니
홍천이라 부르게 된
전설의 고장일세



죽전리(竹田里)

죽전리 군량뜰엔
병자호란 아군의 군량
가득한 병참기지 있던 곳
병자호란 맞아
조선인조 14년
청나라 침입에 패전한 우리
굴욕적 아픔 모두 씻어내어
다시는 이땅의 침입을 막아내자

죽전의 대나무 기상으로
굳게 하늘을 찌르고
다시는 이땅위에 전쟁을 씻어내고
평화로운 마을

죽전교 밑에 흐르는
강물되어
도도히 흐르리라



풍덕천리(豐德川里)

토월리, 신리, 정평이 합쳐
풍덕천이 되었고
풍덕내라 불렀다네

방축골 병자호란때
전라병사 김준룡 방진을 구축하니
방진엔 식량 가운데 두고
사방에서 적을 맞아
싸움을 구축하던 진지
이곳에서
많은 적을 무찌르니
승전하던 유서 깊은 방축골
정자나무 옛자취 흔적없이
아파트만 무성하네

포은 정몽주, 조영규에 피살되고
면례 행렬 풍덕내 이르자
명정이 바람에 날려 문수산에 떨어지니
길을 떠나고자 하면
행여가 움직이질 않아 이곳에 모셨다네
“풍덕에 오신다고” 하여 豐德來를
풍덕천(豐德川)으로 하였고
풍덕천이 물이 깊어 임진왜란 왜적이
풍덩풍덩 빠져죽은 이곳은
역사의 아픔 많은 곳일세



여

백

창포길
포곡면(蒲谷面)



포곡면(蒲谷面)

포곡의 명칭은 가지가지
동국여지승람에는 창포포(蒲)가 아닌
물가포(浦)로 기록되고
연혁집에는 냇가에 창포가 많아 포곡
용인군 지명총람에는
경안천이 면의 한 복판을 뚫고 흐르므로
포곡면이라 하였네

산이 높아 험준하고
넓은 충적지와 저구릉성 산지
에버랜드, 호암 미술관 있어
관광문화의 빼어난 고장일세



가실리(稼室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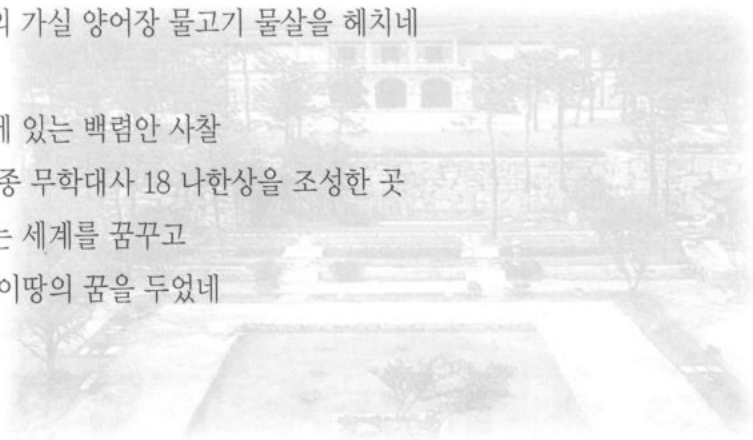
가실리 넓은 벌판 에버랜드는
흥겹고 신나는 축제의 한 마당
자유가 숨쉬는 곳
웃음이 자유를 찾는 곳

왕벚꽃 나무와 호수 주변의 벚꽃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세계 문화의 산 교육장일세

넓고 아름다운 푸른 벌판엔
레이저쇼가 첨단을 달리고
정글속엔 세계 동물 왕국일세

호암미술관의 예술인의 혼 꿈을 꾸고
금당실 연못에 놀던 금붕어 간데 없고
현대인의 가실 양어장 물고기 물살을 헤치네

향수산에 있는 백림안 사찰
조선 태종 무학대사 18 나한상을 조성한 곳
가실리는 세계를 꿈꾸고
세계는 이땅의 꿈을 두었네



금어리(金魚里)

금어리는
매화나무 밑에
고기가 노는 형상이라 하였고

쇠내실엔 통점 낫그릇 만들던
제철 공방 있었다네

금어리의 핀 매화꽃
눈이 녹지 않았는데
꽃부터 피었구나

얼음속에 노니는 물고기
봄을 먼저 피우네

둔전리(屯田里)

둔전리는 주둔, 둔병과 같은 군사용어
현대 도시계획 지역으로
주거단지 건축물
크게 발전한 곳

서남쪽 경안천 따라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땅엔
푸른 녹색의 황홀한 물결
군병들의 황금 나팔소리 들리고
유림동과 사보뜰 중보뜰
도시계획으로 깨어난
주거단지 크게 일어서고 있네



마성리(摩城里)

마성리 마가실은
마고선인 할머니 쌓았다는 할미성
마누성, 마가실이라 불렀다네

겨울 어느날
울타리 밑에 싸락눈 내리고
얼음이 언 마성 저수지
말굽 소리내며
이마를 때리는 바람소리
싸락눈 타고 이땅에 내리면
중고개 넘는 백련암 스님
하얀 옷으로 갈아 입었네

삼계리(三溪里)

삼거리 도사에는
안동권씨 권도사 터를 잡아
살았던 마을

점토질 풍부하여
도기를 생산하며
천주교 신자가 살았던 마을

옷물 약수터 있어
옷물 오른 사람들 이곳에 물 먹으며
모두 나왔다는 약효가 있는 약수터
삼계리의 세갈래 냇물처럼
모두모두 신기하여라



신원리(新院里)

신원리 상선장(上仙蔣)엔
이태조의 경신공주, 상당 부원군 잠든곳
부부의 원찰로 건립된 선장사
임진왜란에 불타 버리고
사지는 남아 있는데
궁궐을 지키던 옛 주인
모두 어데가고
잠든 이땅위에
구름만 흐르는가



영문리(英門里)

영문리 냉천리엔
차디찬 샘물 흘러내려와
우거진 나무숲 적시고 가네
마을 뒷산 꽃봉우리
차가운 산중의 샘
깊은 산속 해맑은 물소리
팔팔팔 맑은 옥소리
산기슭에 해맑은 웃음소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네

유운리(留雲里)

유운리 소운마을
황새와 왜가리 떼
키 큰 소나무 위에
구름 같이 모였어라
하늘이 시샘하여
흰 구름을 뿌렸는가
하이얀 구름 밭에
소나무는 숨어 버렸네

삼성교통 박물관엔
지상의 첨단을 달리는
교통의 요람
세계 곳곳에 꿈을 두었네



전대리(前岱里)

전대리에 가마솥 같이 생긴 부곡
방풍림 울창하니 운치있어 경치 좋고
정호선, 정윤복 신도비
마을 뒷산에 분묘가 있네

전곶(前串)에 흐르는 강
마을을 감돌아
도선장 나루터 다다르니
옛 선원 간 데 없고
무심히 부는 바람소리
방풍림을 헤치며
마을을 지난다



여

백

목화꽃길
모현면(慕賢面)



충열서원

모현면(募賢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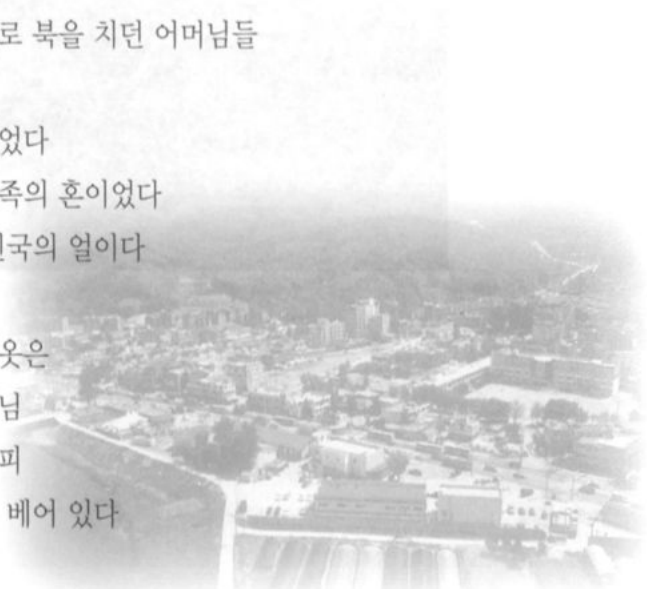
고려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 유해있고
충렬서원 포은묘소, 우수영장, 모현지석묘, 등잔박물관
문화재가 산재한 곳

삼으로 직조한 베와
목화에서 뽑아낸 실로
직조한 무명천
햇빛에 바래 하이얀 옥양목

어머님들의 유일한 산업이던 직조
집집마다 달가닥 달가닥
씨줄과 날줄로 복을 치던 어머님들

조선의 냇이었다
무명옷은 민족의 혼이었다
아니, 대한민국의 얼이다

삼베와 무명옷은
조선의 어머니
우리민족의 피
가슴속 깊이 베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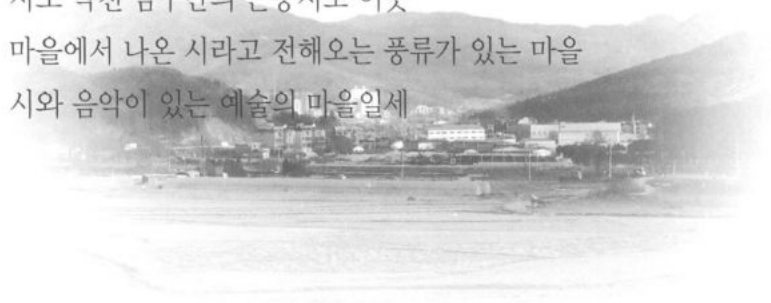
갈담리(葛潭里)

갈담리 파담 마을엔
예부터 시와 음악이
꿈꾸던 고장

어영대장 정찬술이 낙향하고
영의정 약천 남구만은 파담에 온거할 때
개울가에 정자 짓고
시와 비파를 타며 유유자적 하던곳

남구만의 시/ 오월의 바파담에는 꽃시절 이미 지났는데
/ 정이 많아 그렇더냐 키작은 철쭉만은
/ 아쉬운 듯 아직 가지 끝에 꽃잎이 남아 있구나

詩 속에 풍기는 시인의 문학적 감성을 알 수 있는
유서 깊은 마을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짚는다/ 소치는 아이눔은 상기아니 일었느냐
/ 재넘어 사래 긴 발 언제 갈려 하느냐 시조 문학의 백미라고 하는
시도 약천 남구만의 근농시도 이곳
마을에서 나온 시라고 전해오는 풍류가 있는 마을
시와 음악이 있는 예술의 마을일세



능원리(陵院里)

정몽주 묘와 충렬서원, 정한영 효자각
이석형 묘, 표은종택, 포은 영당, 포은 신도비
포은 종택, 영모제와 등잔 박물관등
문화재 산지라고 할 수 있다 우명동 능곡
마을엔 집집마다 소를 기르고 풍년 농사를
거둔 후 이곳에 소를 매어 먹일 때 소울음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려옴으로 소우리라
하였으니
소 있는 마을엔 농경지 문화 풍부한 곳
집집마다 곡식이 가득 넘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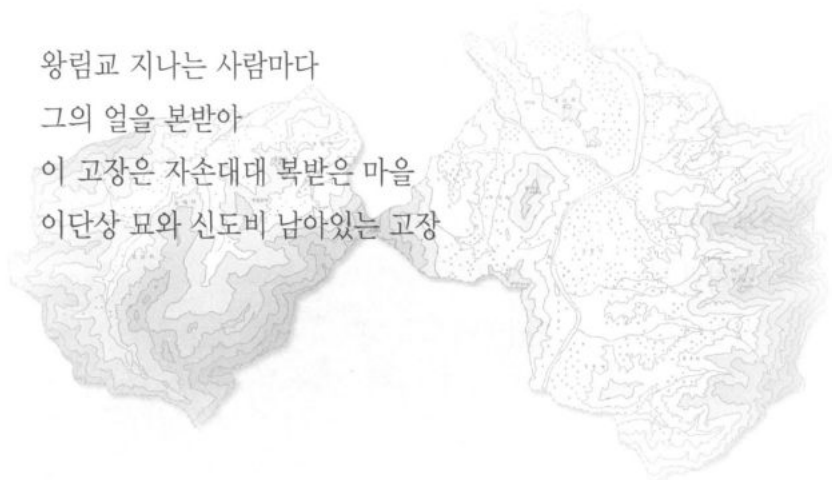


동림리(東林里)

동림리 왕림 마을엔
왕림, 이행상 선비 이곳에 살면서
근면 성실하고
후학을 가르치기에 전념하니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아
왕림 선생 사는 마을이라 지칭하니
그의 호대로 왕림 마을이라 불렀다네

한 사람의 인간됨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 기억되니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산다면 이 아니 좋을까

왕림교 지나는 사람마다
그의 얼을 본받아
이 고장은 자손대대 복받은 마을
이단상 묘와 신도비 남아있는 고장



매산리(梅山里)

고씨능이라고 불리우는 산의 형세가
매화 낙지형이라고 한데서 매산리라 하였고

상촌엔 고씨능과 당골나무, 전나무 밑에
당집있고 구래골, 바람골, 명타골이 있음

상마산은 산의 형태가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하여 마산이라 하였음

이일장군의 묘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
평양을 수복하고 무용대장을 지냈음

〈매산리〉

매산에 올라 고씨능 바라보니
산의 형세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니
이 고장은 풍요의 땅이로다
누구든지 이 고장의 맑은 물 마시면
부귀영화 장수하고
말처럼 달리는 빠른 행보
사업이 번창하고 부귀영화 있으리라



오산리(吳山里)

오산리엔 추담 오달제, 오명항, 오윤겸, 오희문
해주오씨 일문의 묘소가 산록마다 있고
해주오씨에게 내린 사패지(산)가 있다
해주오씨 시조단, 천주교 공원묘원
추담 오달제 대낭장비 등이 있음

본동엔 오도일초상, 해주오씨 시조단과 사묘인
유적재, 있고 남동쪽엔 오명항묘, 남쪽엔
오희문, 오윤겸, 오수량 해주오씨 일문의 묘

사기막은 조선시대 자기를 굽던 요업지

〈오산리〉

물푸레나무 하늘을 찌르고
밤나무 골의 부는 바람
입벌린 알밤 때그르르 굴러가니
산록마다 잠든 선인들의 묘소에서
웃음소리 들리누나

경치 좋은 산자락 마다
죽어서도 차지하는 선인들이여!
살아서도 부귀영화 죽어서도 호강하니
한번 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아귀다툼 하는구료

왕산리(旺山里)

왕산리 관청마을
학교, 파출소, 우체국, 농협, 면사무소 있고
석자포 강변엔
자갈이 많아 돌자개라 불렀으니

왕곡의 지형 보던 지관은
이곳은 금거북이가 진흙속에 잠긴 형국
(金龜沒泥形)이다 하였으니
왕의 비유 할만한 좋은 고장일세

〈왕산리〉

강변의 금빛 햇살
찬란하여 눈부시다
강변의 자갈 딛고
왕곡을 바라보니
장전평 펼쳐진 푸른 논밭
금거북이 진흙속에 잠겨
낮잠을 즐기다가
영금영금 걸어간 고지
맨 먼저 깃대를 꽂는다

일산리(日山里)

아침 일찍 해가 뜨는 내개일, 왜개일
봄을 먼저 가져오는
개나리 닳았어라

봄이 오기전에
꽃부터 피는 개나리
아침이 오기전에
해부터 떠오르니
얼마나 살기좋은 마을인가
일산으로 오셔서
해뜨는 광경 지켜보세



초부리(草苒里)

약 200여년전 승지를 지낸
정건의 분묘가 달리는 말이
안장을 벗어놓고 풀을 향하여 나가는 지형
(馬形)이라는 뜻에서
초부라 하였고
이 휴암(休菴)의 은거하면서
부용화(芙蓉花)를 많이 심어서 부곡이라
하였는데
상부곡엔 시냇물 흐르는 마을 옆에
한 평 가량 되는 바위가 있어 두 사람
정도가 앉아 장기를 둘만하다 하여
휴암(休岩)이라 음각한 글씨가 있음

〈초부리〉

안개 낀 산아래
제 몸의 깊이만큼 냇물소리
여름 물소리 신이 나지만
겨울 물소리 들리지 않네

휴암에 앉은 두 선비
장기를 두는 소리
아따금 바람처럼 들리는데
냇가에 발 담그고 놀던 어린이
어데 가고 하나 없나
이따금 장기 두는 소리
물소리가 지우네

밤꽃길
남사면(南四面)



창리선돌

남사면(南四面)

남사면은 이태조 6년
현령이 보직된 곳

공신 권귀의 출신지
외적의 침입을 받았으나
격퇴시켜 고지를 승격시킨 곳

고려 고종 12년 몽고 침입시
김윤후가 몽고장수 살리타이를 사살한 곳

이성은 백제 때 축성된 것인데
태종 13년 용구와 처인을 합쳐 용인현

진위천 일대 땅이 기름지니 삼남과 같아
살만하다고 하였다

처인 성지, 창리선돌, 개국공신 남은
호성공신 심대 묘가 있고 한화 컨트리 클럽이 있다



방아리 (防牙里)

마을 앞 큰 냇가 막아
보름 쌀아 농업용수로 쓰던 마을
장마지면 넘쳐난 제방 막아
방축동 되었네

아리실 산자락 둘러쌓인 삼태기 마을
밖에서 보이지 않는 마을
어금니와 같고 감추어진 어금니
잘 씹어 먹으면 건강에 좋다하여
아리실(牙利室) 되었으니
조상님의 슬기와 지혜
뛰어난 화강암의 고장일세

봉명리(鳳鳴里)

〈1〉 유평(柳坪)동 버드나무
하늘을 찌르고
높이 퍼진 잎새 햇볕에 반짝이니
앞사귀 사이에 우는 매미소리
여름날 오케스트라

우아하게 늘어진 기품
파아란 빛깔이
제일 먼저 깨어나 춤추니
버드나무 피리 불어
맘껏 흥을 돋네

〈2〉 밤동산 우뚝 서서 푸른산 지키더니
새벽 숲속 이슬 마르지 않았네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
내가 심은 그 밤나무
밤송이 가득 맺어
가을을 가득 담아
열매로 보답하니
숲속엔 낙엽이 구르는 여운 맑고
무심히 떨어지는 밤알
저 숲속에 고향 이야기 가득담아
알밤되어 여물었네

봉무리(鳳舞里)

봉황이 춤추는 형상의 바위있어
봉무리라 하였네

오목동(悟木洞) 나무위에
봉황이 깃들이니 봉무리 길조로다

오색 찬란한 자태 으뜸의 새
그 이름 봉황일세
멀리 들려오는 봉황새 울음
온 세상 평화로다

향정동(香亭洞) 수백년 은행나무
푸른 잎새 우리의 마음 샘물되고
샛노란 잎새 맑고 깨끗한 빛
가을 옷 갈아 입고
은행알 남겨 두고
잎새마저 벗어버리는 너
현신의 마음 두고가네



북리(北里)

삼인동 어진 세사람 모여
이마을을 이루었다네
세사람 모여 일을 하면
못할 것이 없으니
나라도 세울 수 있다네

어진 세 사람 있어
삼인동 마을을 이루었으니
그 이름 오늘까지
아니, 영원히 빛나라라

마을 위쪽 저수지
산 좋고 물 맑은
인심 좋은 마을이네
어진 세사람 죽어서도
복있는 마을
한원칸트리 클럽 있어
현대를 이끌고 가네



아곡리(衙谷里)

아곡리 남산은 처인현 관아가 있던 마을
백제 때 축성된 처인성 사적
고려때 군창이었고

몽고 2차 침입시 승장 김윤우가
몽고장수 살리타이를 사살하였다

아곡리
관아가 있던 남산골의 부는 바람
시장터 들에 머무르며
승장 김윤후의 용맹 감싸 안으니
안터골 골짜기 흐르는 샘물도
박수치며 화답하는 맑은 물소리



완장리(完庄里)

완장리 매릉동
함봉산의 산자락은
매화 낙지형 같도다

새벽이면 불성사 새벽 깨는 목탁소리
중생들을 깨우니
부처님의 자비가
천지에 기운이 돋네

임진왜란 삭령전투
순직한 충장공 심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니
부처님의 자비가 크도다

원암리(元岩里)

원암리 사기막엔 도자기 굽던 요업지
도예가들의 손놀림 들리는 듯 아련하다

흙과 불이 서로 만나
물과 흙이 서로 만나
도예가의 얼을 받아
수천도로 구워내니
훌륭한 작품으로 탄생되어
천년의 세월속에
민족의 혼이 되었네

전궁리(全宮里)

전궁리 뒷산의 형세가 인왕(人王)자와 같고
골자기가 활궁(弓)같이 생겼다 하여
전궁리로 하였다네

각궁 뒷산의 형세가 황소 뿔이 난 형상
이므로 각궁이라 하였네

염심은 길다던 승려가 불현듯 심신에서
깨달은 바 있어 도승이 되었으니
염심이라 했다네

〈승마〉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사람
기백 드높고 남성의 힘 넘치니
장원급제 하고 말타고 오는 선비
만인의 추앙일세

황소의 뿔은 명예를 상징하니
이 고을은 활기가 드높구나
마을마다 경사로다
자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네

진목리(眞木里)

진목리 참나무 무성한 뜰
순지 연못 있어 미나리 무성 하였지
〈진목리의 순지 연꽃〉
진흙속에 피어난 연꽃 몇송이
세상죄 물들지 않고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해맑은 꽃
늘 속을 비워내는 가슴
가지를 두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의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
인간의 삶을 일깨워 주네

높은 기백 고고한 지조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자태로다
뿌리는 둥글어 원만한 성격
구멍마다 사랑이 가득 있어
순백의 순결함과 담홍의 따뜻함이 조화로운 꽃
고려 충선왕이 사랑하는 원국 미희에게
한 떨기 꺾어주며 석별의 정 나눈 꽃
불교와도 깊은 관계를 가진 꽃이라네

창리(倉里)

창리엔 월곡, 창동, 화곡, 마을 있다네
깊은 골짜기 마다 꽃이 많아
꽃골이라 하였다네

뒷산엔 개국공신 남은의 묘 있고
어느 선비가 과거시험 보러 오던 중
꽃골 새악실 샘에 목을 축이고
잠깐 잠들어 기괴한 꽃을 보고 좋아서
거닐다 깨어나니
과거시험 합격하여
꽃골에서 꽃 꺾으면
안된다는 전설 있다네

달봉산 아래 피어 있는 꽃
월곡 저수지 바라보니
물속에 목욕한 여인처럼 해맑은 웃음
반달처럼 생긴 산자락
기지개 켜면
창리 저수지엔
갓 피어 오른 연꽃 봉우리
향기로운 향기에 취해
백로 한쌍 저수지에 맘을 돈다

통삼리(通三里)

통삼리 동막동은
장군이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하여
동막동이 되었네

북정동은 북쪽에 큰 우물 있어
북정(北井)동이라네

원포동은 마을 앞으로 개고랑 있어
먼개, 멩개라 하였는데 개는 옛 우리말로
포(浦)와 같으므로 원포동이라 하였네

통곡은 마을 뒷산 형세가 소가 누운 형인데
그 앞에 쇠죽통(여물통)있어야 한다고 하여
통자를 붙여 통곡(通谷)이라 하였으니
골마다 아름답다 재미있는 역사가 있으니
선인들의 지혜 뛰어난 마을일세



여

백

은행나무길
이동면(二東面)



이동면(二東面)

조선 태조 13년

상동촌면(上東村面) 하동촌면(下東村面)

합쳐 이동면(二東面) 되었네

서리 함박산 남쪽과 북아산 동쪽 발원하는 물

송전천 되어 어버리 저수지 되었네

신라때 초창된 굴암사지 있고

용덕사천 흐르는 물 적동 저수지 되었네

어버리 저수지 경기 평야 젖줄이고

강태공 낚시인의 사랑 받는 곳이라네

서쪽 동도사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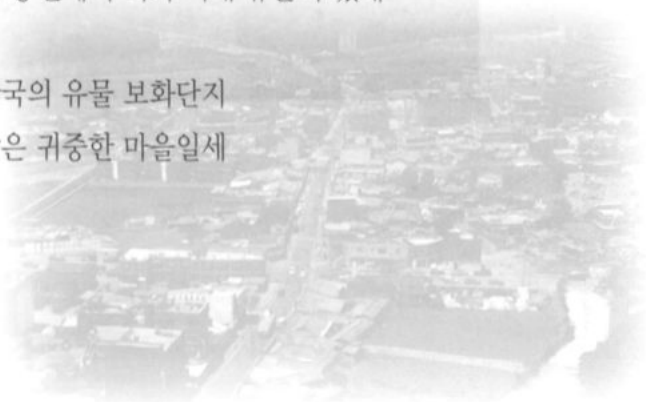
신라말 석탑과 석조 석가모니불 있고

화산리에 웅기 요업지와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백자

요업지 있고 능선에 구석기 시대 유물지 있네

이동면은 한국의 유물 보화단지

심장부와 같은 귀중한 마을일세



덕성리(德成里)

덕성리 솔밭마을 무성한 소나무
하늘의 푸른 본성 받아
사시사철 푸르르니
장대한 기품 곧은 절개
낙락장송 되었네

칼바람 부는 겨울
싸아 하고 지나가면
마디마디 가지가지 휘늘어져 춤을 추니
삼파마을 지나던 신라 도선국사
마을의 지상이 매우 길하다 하여
세 번 절하고 지나가니
삼배마을 되었고
원덕성 소(蘇)마을 덕을 베풀며
살았으니 그 뿌리 지금도 남아
덕을 베푸는 마을로 소문났네

묘봉리(卯峰里)

묘봉골 아랫마을
오얏나무 한 그루
싸늘한 바람
잎새에 스치니
옷깃을 여미네

싸락눈 하얀 눈꽃
달밝은 밤하늘에 보석이 되네

묘봉리 저수지에 떠있는 보름달
은하수 길 찾아 산 너머가니
저수지에 비친 별
물가로 내려와 목욕을 하네

묵리(墨里)

묵리골 거문정(巨文亭) 마을에
문장이 뛰어난 선비 있어
거문정이라 하였으니
광파리골 흑자기 굽던 가마터
검은 골이 거문정 되었네

삼백여년전 장씨가 살던 장촌
문화 유씨 들어와 6대를 이루니
고초동으로 이름을 바꾸다가
장촌으로 불렀으니
골마다 역사로다 길마다 뜻이 있네



서리(西里)

서리에 가무랑곡 무성한 나무숲
낮에도 어둡고 킁킁하니
현곡이라 하였다네

눈오는 겨울이면 하얀옷 바꿔 입고
어둡고 킁킁한 계곡
하얀 병풍 펼쳤다네

사기막골 부부가 살면서
사기그릇 구워파니
고려백자 조선백자 요업지로
소문난 고장일세

신라 효공왕때 세운 절
스님의 독경 읽는 소리
산에서 흐르는 샘물처럼
낭랑하게 들리니
새벽닭 우는 소리
아침 예불 알리네



송전리(松田里)

솔밭에 뒷산 모양
갈모처럼 생겨 갈피갈산이라 하였다네
송전 초등학교와 송전농고 있는
두뇌의 샘이 샘솟는 고장

참샘뜰에 참샘있어
어린 두뇌의 샘
끓이지 않네
송전초교의 어린 새싹
이땅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송전농고 농학에 건아들아
농경지 문화 발전시켜
세계속에 한국농촌
무공해 신토불이
우리의 자연의 맛
길이 길이 보존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라

시미리(時美里)

시미리 마을 효자가 장사를 모시고
3년간 시묘하였으니 동네 소문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하늘도 탄복하네

청해이씨 가문에
효부가 나서 효대를 세웠는데
이곳을 효대박이라 불렀던 것 변음되어
세때배기 되었네

쌍괴마을 조선 초기 문신인 계은, 이귀령
만년의 하동촌 내곡에 은거하며
동구박 괴목 두그루 심으니
상공을 지낸분이 심었다 하여
상공괴라 한 것이 변하여 쌍괴마을 되었네

느티나무 두그루 서서
주인 잃은 슬픔
상념에 젖어 있고
바람은 여전한데
옛 주인 간데 없으니
가슴에 묻어둔 채
하늘만 바라보네

어비리(魚肥里)

고기의 날개 지느러미와 같이 생겨
어비리 마을 이라네

장호천 흐르는 물줄기 깊어
제방을 쌓으니 저수지 되어
고기가 살찌는 마을
남시꾼의 강태공 낚는
어비리 낚시터 되었네

방목마을 울창한 나무아래
삼층석탑 문화재 있고
따오기 깃들어 따옥, 따옥 슬피우니
울창한 나무숲 고요를 깨네

점촌의 용기마을
용기 굽는 저 손 보니
몇 대를 이어온 솜씨
장인의 정신 넉넉한 손
우리 민족의 애환이
저 손과 함께 세월을 가득 담고
지구처럼 돌아가네
세월처럼 흘러가네



천리(泉里)

천리의 구수동 마을은
구석기 시대의 찧개가 발견된 곳

산 좋고 물 좋은 정자에 앉아
옛 선비들 이동팔경(二東八景)
詩지어 읊으며
남립북향삼봉산(南立北向三峰山)
서출동류구계수(西出東流九溪水)등
동이름이 참고가 되었다

원춘엔 영조 때 성리학자 도암 이재선생의
시위를 배향한 한천서원이 있다

적동엔 신라 때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통저골이라 하였고
고려말 이성계를 도와 개국공신
거란의 통두란이 일대를 사패지로 받아
가옥을 통시저택이라 하다가 통저골 되고
늦쇠로 그릇을 만들던 골방있어 통점골이
임진왜란 때 원씨였던 의병장이
통소소리를 신호로 하여 외적을 무찔러서
통저골, 한자 표기로 적동(笛洞)되었네
동의 유래가 아름다운 으뜸마을일세

화산리(華山里)

화산리 모산동에 600년된 은행나무
화학산 주변 평탄하여 태평하니
600년된 은행나무 은덕이라
매년 두레갯을 하였으니
순수한 마을 사람들의 성품
유순하여라

은행나무 잎새마다 질푸른 잎새
여름내 마음의 샘물 뿌려주다가
가을에 노란 잎새 가져오니
길가던 손끝엔 은행잎 가득
평화롭고 태평한 마을일세
복되고 즐거운 마을일세



여

백

닥나무길
원삼면(遠三面)



미평리약사여래입상

원삼면(遠三面)

원삼면은 대통령에 의해 이관된 마을
청미천 있어 곡창지대를 형성하여
기름진 땅 살기 좋은 마을일세

문수산 산지에 마애 보살상 있고
건지산 봉수지 행군리 토성지등 유적지
맹리에는 남방식 지석묘 있다

무진 위훈 공신 허계, 허선 부자의 초상 있고
양천 허씨 문중의 허엽, 허봉, 허균의 묘와
신라 말엽의 3층석탑 1좌가 두창리에
미평리에는 장육존불(약사여래입상)이 있다

구한말 의병장 오인수 그의 아들 오광선
손녀 오희숙, 오희양 등 3대 독립투사가
배출된 고장
원삼면은 곡창과 유적지 문화재와 독립투사가
배출된 화려한 으뜸의 고장



가재월리(加在月里)

태봉산 긴 등성이 사계따라
옷 갈아 입고
청미천 따라 흐르는 물살
백옥처럼 희구나

돌다리 건너던 옛님
바람따라 가버렸나
님따라 가버렸나
물소리만 요란하네

달 밝은 가을밤
선녀골에 내려온 별
석실 저수지에 얼굴 비추고
태평스레 환하게 웃다가
구름속에 얼굴 가리고 숨어 버렸네
평화로운 가재마을

고당리(高塘里)

〈원삼중학〉

고당리 숲 무지 마을
숲이 우거진 저무네 뜰
원삼의 건아들이여
학문은 이상이요 이상은 꿈이니

하루에 아침이 있고
일년의 봄이 있듯이
인생의 청년 황금시대 있어
큰 발전 이루려니
기회를 허망되게 버리지 말고
온몸을 던져
꿈을 향해 도전하면
기필코 성공하리
금자탑 보이리라



독성리(篤城里)

황토현 청동기 유물 독살촉 발견되고
독성리 야광길 무학대사
천도지상 보러 다니던중
이곳에 이르러
夜光가 묻힌 지상이라 해서
야광이라 불렀다는 속설이 있음

고려말 이조초 고승 무학대사
이태조 사상 무학대사 영향 있어
건국에 힘 쓴 무학대사
다녀간 곳이니 독성리에 길운일세

두창리(杜倉里)

두창리 분촌은 분갯마을
산기슭 밭둑에 서 있는 닥나무
봄에 꽃 피어 초 가을에 붉은 열매
분촌을 가득 메우니
나무껍질 섬유 한지 만들고
열매는 한방에 약재로 쓰니
두창리는 부자마을 되었네

용수마을 5~6척의 물줄기
숫아올라 용천(湧泉)이라 하였는데
어느사람 묘를 쓴 후 용천수 끊어져
마을되고 용수(漚水)가 용수(龍水) 되었네

맹리(孟里)

맹리에 능내마을엔
조선조 인조 때 허적이 나라에 공을 세운 뒤
양릉부원군 되어 죽은 후 묘를 썼다 하여
능안, 능내 되었네

맹동마을 양천 허씨
문관이 많이 배출되니
추노지향(鄒魯之鄉)이라 하여
맹동마을 되었네

행군마을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곳을 지나다가
행군이 토성에서 의병에게 패하니
행군리(行軍里)되었네

청미천에 흐르는 물
맑고 깨끗한 물
백암의 곡창지대 지나
용인의 특산품
백옥쌀로 유명하네



목신리(木新里)

구봉산 마을 아래
하천이 마을 앞을 감돌아 나가고
목악부곡의 제일 큰 마을
보아지뜰 연접한 넓은 들
신촌의 새로운 마을
푸르게 푸르게 용인의 넓은 들
밤에는 별들이 내려와
구봉산 마을아래 쉬고가네



문촌리(文村里)

돌꽃이 돌많은 마을엔
물탕 약수터 있어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마을
누구든지 이곳에 물 먹으면
건강해 지리니
나그네도 오시게
누구든지 오시어 건강을 찾아보세

미평리(彌坪里)

미평리 마을 가운데
고려시대 약사여래장육존불 있었는데
미륵불로 생각하고 미륵불(彌)자를 따고
문화재로 남아 있어
무병장수하고 재난에서 건짐 받는
형통한 마을일세

어떤 지관 지나가다
마을 뒷산 바라보니
기러기가 내려앉은 형상이라 하여
생안(生雁)이라 불렀으니
기러기는 길운을 가져오는
미평리는 평화의 마을일세



사암리(沙岩里)

사암이 용담, 용암마을
지형이 못지(池)형국이며
용이 나왔다 하여 용담이네

용암 마을엔 바위속에
용이 승천하여 용암 마을이니
길운이 있는 마을

천곡에 샘곡마을 있어
사철 솟아나는 샘물 있으니
가뭄이 들어도 농사가 대풍하니
사암리 마을엔 농사 풍년 인심 좋은
천운의 마을일세

좌항리(佐恒里)

좌찬역 마을

정이오(鄭以吾)가 좌찬역을 읊은 시
성을 나온 것을 알래라 몇 날이고/
길에 오르니 서늘한 하늘이 기쁘도다/
곤고하게 세월이 빠르고/
소소하게 풍우가 연하였도다/
공명은 말 등위에서 수고로웠고/
돌아갈 뜻은 갈매기 옆에 떨어진다/
이미 부귀도 구할 수 없으니/
억지로 채찍을 잡는 것을 말하지 말라/
(공자가 말하기를 “부귀를 구할 수 있다면
말고 뼈 잡는 종 노릇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 좋은 대로 하리라”)
고 하였다

시가 있는 마을 풍유가 넘치는
유서 깊은 마을일세

죽릉리(竹陵里)

승죽마을 뒷산에
조릿대 많이 자생하니
난리가 났을 때
죽창을 만들어
적을 물리치니
적은 물러가고
승리의 나팔소리
승죽골(勝竹)을 울리네

화포(火浦)마을 불탄개 마을
사냥꾼 포수들의 화포계 모임에서 나온말
사냥꾼 많으니 울창한 숲
깊은 산골의 경치 빼어나고
운치 있는 마을일세



학일리(學日里)

학일 마을엔 학과 백로 서식하니
학일(學日)이라 하였다네

병자호란 3학시중 한 사람
추담 오달제 태어나고 학일(學日)
이라 하지만 부인 묘지엔
학일이 서울 출생으로 기록되었네

학일이여
충신의 이름으로 나라위해 살다가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반항하다
피살되었으니
그대의 붉은 선혈 헛되지 않아
후대에 빛나니 영의정에 호는 충렬일세

이 고장 충신 있으니
후예들의 본이로다
학문과 덕망 있는
많은 후진 태어나리

잣나무길
백암면(百岩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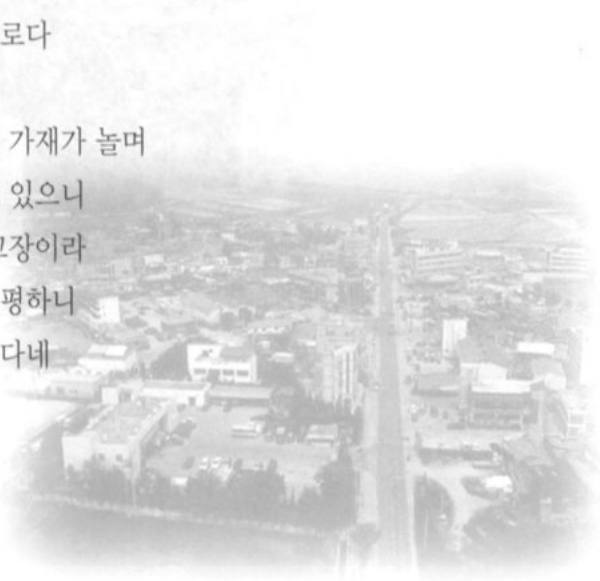


백암면(百岩面)

구봉산 청미천 곡창지대
가을에 추수곡식 산처럼 쌓이고
수정산에 자수정이 나왔으니
의, 식, 주 금은 보화 부자마을이라

오백나한 신라때 절터 있고
가창리에는 석종형과
용화사에 석조 미륵 있고
용천리에 고려 5층 석탑
석천리 정백산 반계 유형원의 묘 있으니
문화재 풍부한 고장
후손들의 복이로다

가좌리 물가엔 가재가 놀며
석실마을 돌집 있으니
하늘이 내린 고장이라
만사가 무사태평하니
태평촌이 생겼다네



가좌리

가재 잡던 어린시절
걸어올린 무릎사이
하얀 물살 간지러워
깡충깡충 뛰던 어린시절

석실마을 뒷산에 암석의 암굴
두칸방 크기의 각각 돌실 있어
석실(石室)이라 했다네

태평촌 돌다리 하나
여러번 난리 겪었지만
피해없이 그 자리 묵묵히 앉아
세월의 아픔 되씹고 있네

임진왜란 죄항이 태봉산에서
쫓아오던 왜병 보이지 않아
무사히 돌아와서
태평촌 되었으니 유래만큼
아름답고 태평한 마을일세

가창리(稼倉里)

가곡 산골마을엔
순박하고 부지런한 사람
쉬지 않고 농사지으며
열심히 살아온 마을

순수한 성품 자손 대대 물리니
진실된 성품 가훈으로 삼고
지금도 이고장 사람
인간됨이 소문난 마을일세

가창리부도
화강암으로 된 석종형
어느 고승의 부도인지
알 수 없지만
장구한 세월
그 자리에 앉아
순수한 이 고장 사람
지키고 있네



고안리(高安里)

소정마을 작은 정자 하나 있어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
지금도 들리는 듯 아련하구나

지내(池內)마을 큰 연못 있어
연꽃이 필 때면
지나던 선비 시 한 수 쓰던
정겨운 연못
물가에 비친 얼굴
선비를 닮았는가

칠천 마을 약수터는
신비를 감춘 샘물
옷 오른 사람 그 물로 씻으면
씻은 듯 낫는다는 옷 샘이니
길 가던 나그네 누구라도
이 샘에 오면 비밀한
생명의 약수터 되리

근곡리(近谷里)

노동(老同)마을
산 밑에 흰 바위
노인의 머리를 닮았는가
하얀 바위로다
노인의 지혜와 덕을 닮아
절망에도 이기는 힘 기르리

산의 형태 말머리 닮아
마두마을 되었으니
말의 높은 기상
달리는 힘을 길러
모든일에 선봉에서 일하네

종평의 지대 높아
마루뜰 되었으니
높은 자리 굽어보며
만조백관 누리며 살아가리

근삼리(近三里)

산세 수려한 구봉산 자락
산의 정기 받아
양순하고 준수한 인물이 나리라는
풍수가의 예언 있어
양준리(良俊里)라 하였으니
예언대로 우수한 인재
태어난 고장일세

청미천 바깥쪽엔 외수곡
안쪽엔 내수곡 있어 시냇가
길게 흐르던 청미천 푸르게 흘러가네
예전에 기와집 있어
기와집말이라 하였고
능안꿀 골짜기 마다
다람쥐들의 놀이터
다람쥐꼴이라 불렀으니
근삼리 마을엔
평화가 깃들었네



근창리(近倉里)

강당골 마을엔
공맹의 도를 강학하던
서당 있었으니
학생들 모여 도 닦으니
꿈꾸는 자들의 사철 타는 불꽃
오늘도 지혜와 지식의 문
활짝 열어놓고
정상을 향해 가는 길
험난한 절벽 오르는
산악인의 피와 땀
비상하려는 새들의
날개짓이 되었네



박곡리(朴谷里)

박곡리 박석마을
바가지 닳아 박석이니
골이 깊고 깊어 윗말 상촌이라 하였네

오방난골 신라때의 사지가 있는곳
오백나한 안치되어 있고
여보살 불상있어
신라 역사 귀중한 고장일세

원내골 원님 살던 곳
청계골의 사시사철 맑고 푸른 물
청계라 하였으니
원님의 맑은 심성 닳아 깨끗한 고장일세

백봉리(栢峰里)

백봉리 가골은 샷갓처럼 생겨
갓골이라 하였고
백동은 잣나무 많아 백동이라 하였네

봉리 마을 임진왜란 때
두 번 진을 쳤던 곳

잣나무 많아 푸른 고장
샷갓처럼 생겨 갓골이니
방랑시인 김삿갓이 생각나는 고장일세

바람불어 잣나무
낙엽 물결 흔들리니
임진왜란 뼈아픈 상처
바람의 날려 보내고
피난민 열심히 살아
크게 번성한 대흥동 마을

백암리(白岩里)

씨레산 산자락은
사시사철 푸르르니
사찰의 풍경소리
산자락을 흔드네

새벽별 반짝이니
스님의 독경소리
더욱 더욱 커지니
인류의 잠깨는 소리
백암리를 흔들어 깨우네



석천리(石泉里)

석천리 덕은 마을

덕망있는 유형원 17세기 실학자 살았으니

마을 사람 그를 존경하며 사랑하니

소문이 인근에 퍼져

덕은동이라 하였네

사천의 흐르는 하천

마을 빗겨 흐르고

황석의 큰 소나무

사시사철 황새 깃들으니

황새울은 풍요의 고장

평화로운 마을일세



옥산리(玉山里)

옥산리 상산에는
가장 위쪽 으뜸산이고
산기슭에 있는 마을
옹기종기 모여사는
빼어난 고장일세
솔 만들어 팔던 솔점말과
아송 마을 동구 밖에
소나무 즐비하게 푸르러서
아송이라 하였네

북쪽 돌산 산봉우리
옥같이 생겨 옥산이니
옥수같은 냇물따라
한국 특산 희귀식물 천국이니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하산하는 물살 따라
비봉산 자락 잠든 봉우리
기지개 켜며 일어선다



용천리(湧川里)

죽말 뒷산에 샘이 솟아올라
용천수라 하였으니
강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는
빼어난 고장일세

문화동산 협간에 절터 불당골
고려때 5층 석탑재가 있고
서북쪽에 선경암 있으니 명승 고적이라

산속에는 밤나무 무성하니
물 맑고 강이 흐르고
우거진 밤나무 사시사철 불어오는 바람소리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네



장평리(長坪里)

장평리 밤애(栗漚)마을
끝없이 길게 심어져 있어
밤애마을이라 하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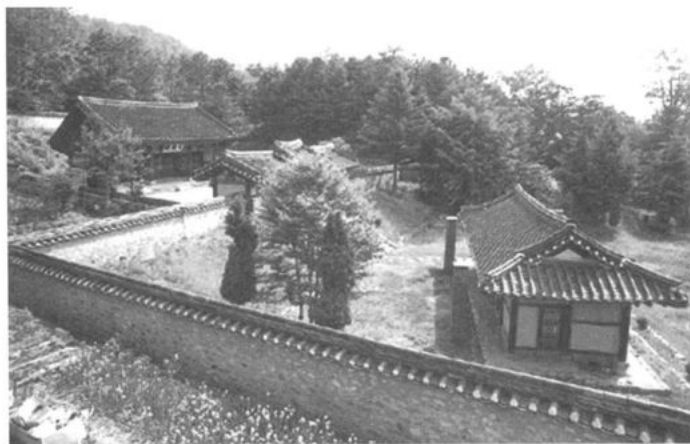
장재마을 거부장자(巨富長者)살았으니
조비산 정상에 흰바위
묵묵히 밤산지켜 부자마을 되었다

고요한 가을 석양
밤나무 숲에 모여 앉은 연인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듣고
고향 이야기 도란도란
밤송이 방긋이 벌어져 붉은 알 엿보이면
돌팔매질 매정하게 후려치는 연인아
집집마다 알밤 구르는 소리
저 숲에 이야기 간직한 채
밤잠을 설치네

여

백

소나무길
양지면(陽智面)



양지향교

양지면(陽智面)

조선 정종 원년 기묘년에 감무를 두었고
태종 13년 계사에 현감으로 고쳐
고종 32년 용인군과 통폐합되고
광복 50주년 맞아 양지면이 되었네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엔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있고
총신대와 송병준 별저터 있으니
광복은 기독교 순교자의 영향 받은
역사적 잊지못할 중요한 고장일세

조선 말기 천주교들 박해 심해지니
숨어 살면서 마을을 이루니
오늘날 이 고장은
하늘의 축복으로 잘사는 마을이 되었네



남곡리(南谷里)

용곡마을 김대건 신부 성장한 곳
은이(隱里)마을에는
조선 말기 천주교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이 마을에 숨어살던
생명의 마을 은혜의 마을

주님의 사람 박해하니
수많은 생명 피밭이 되었고
은이 마을에 숨어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생명 구원되니 축복의 땅
하늘이 이땅에 축복을 내리네



대대리(大垞里)

대대리 무량동엔
아미타불 모셔놓은 법당 무량수전 있어
나무아미타불이라고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네
수천억의 단위 합치고 합치어
불가사의(不可思議)를 수억배 하면 무량대수
유한과 무한 실존과 부재의 동시성을 지닌 것이
무량이니 불가사의 한 고장일세

옛날 강씨 살던 마을
힘이 장사라서 무장골이니
후일 장사가 망하게 된 후
무(無)로 변하여 무장골이 되었네

도깨비골은 홀아비가 처녀 도깨비에 홀려
정을 나누었다는 마을
옛날 도깨비와
현대 E.T.(외계인)이라는 해학이 담긴 마을

사기점 마을엔 천주교 가옥 한 채 있고
운다동은 구름과 안개 끼어 있는곳
아름다운 정서의 고장일세



송문리(松門里)

송문리 반정마을
소반과 같이 생겼네
송문 마을 불어오는 소나무 향기로워
나무전 개설하고 솔문을 세웠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충신
유복립과 그의 후손 유순처 효부
안동권씨의 정려각 있고
송동 굴안에는 송씨들 살고 있는
소나무 고장 있어
늘 푸른 마을이라네



식금리(植金里)

식금리 가루마을
남북으로 보이는 긴 마을
늦점의 철기문화
광물질 발달한 고장

금곡의 쇠일고장
늦점 발달한 고장

감자사화 때 화를 당한
박은묘 남아있어
선인의 뉘이 잠들어 있는 고장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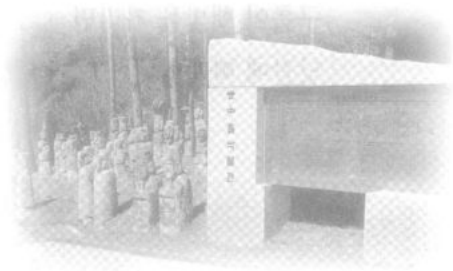
양지리

양지리 교동마을엔
향교와 면사무소 있고
수여선 운행되었을 때
역사와 잠종 연구소, 양지대학 세종 옛돌 박물관 있으니
선비가 태어날 고장일세

등촌에 등나무는 하늘 사다리로 오르고
등원군수 지낸사람
이곳에 터를 잡으니 등촌이라 했다네

암곡의 큰바위는 산새들의 놀이터요
학촌의 왕씨들 많이 사니
왕씨말이라 하였네

황새가 많이 날아와서
깃든 곳이 학촌이요
선비와 학의 기교
천생의 연분일세



정수리(定水里)

정수마을 양지쪽엔
기남이 고개 있었는데
기남이란 사람하나
학교를 다니면서 고생하던 산길
장성하여 다니던 이곳에 길을 내어
기남고개라 하였다네

양달말 서쪽마을
사시사철 산새들의 놀이터
사계따라 피어나는
분홍빛 진달래꽃
바람이 불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다가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
낮잠에 빠져있네



제일리(霽日里)

비가 오고 있었네
여주 영릉 참배길에 나선 어가가
이곳에 이르자
날이 활짝 개었으니
개일제, 날일자 붙여
제일이라 하였다네

공세동 세금마을
세금 거두어 나라에 바치던 창고
이곳에 있어 공세동 되었으니
나라 위해 부강한 마을

밤나무 무성한 산땃골엔
하늘을 가리던 밤나무
사시사철 그 자리 서서 무슨 생각 하고 있나
선유대 신선이 놀던 고장
그 님들 다 어데가고
밤나무 바람소리만
옷깃을 스치누나

주북리(朱北里)

가장골 뒷산엔
옥녀형 옥녀봉 있었으니
옥녀봉 나무 아름다워
아름다울 가, 전장(田庄)이 있다하여
가장동(佳庄洞)이라 하였고
옥녀봉 아래 집짓고 살면
부자가 되었다네

박씨들이 이룬마을
박성(朴成)마을 있고

갈현마을 칠평쿨 무성하니
건강식품 먹고 사는 마을
국민 건강 보장하네



추계리(秋溪里)

고려때 명심보감 쓴 추적이
낙향하여 살던 곳
태종 13년 계사년에
광주의 임내였던 추계향으로
처소 옮겨 추계리라 하였네

금박산 감나무꼴 감나무로
가을을 빨갱게 물들이니
노을이 찾아왔다 미안해서 빗겨가네

느티나무 우물가에 아낙네 웃음소리
명목바위에 명매기 새끼를 낳아
둥지마다 기뻐하는 노래로다

붕바위 부엉이 우는 소리
집을 찾아 헤매는 새끼들
어미 찾아 부엉부엉 밤새도록 우는 구나

평창리(坪倉里)

도창동 마을에는
정부의 환곡을 보관하던 창고 있고
무신란때 군수물자 저장하던 창고 있으니
무수막에 살던 사람들
근심 없이 부유한 삶을 사니
이 아니 태평성대가 아닐까
평촌엔 풍천 임씨들의 집성촌
인삼, 담배, 삼 재배하니
집집마다 풍요로다
마을마다 웃음 소리
춤추며 사는 마을 웃으며 사는 마을



하늘길
중앙동



중앙동

용인의 심장마을

관공서, 기관, 금융기관 심장부가 모여있네

심장의 피돌기 동맥 정맥 흐르듯

금학천, 경안천 합류되어 흐르고

서쪽 노고산 자락 팔각정 하늘이고 서서

현충탑 바라보며 꿈꾸는 마을

함박산에 미래의 후예들 키우는

명지대와 태정중고

동맥이 되어 뛰는

푸른 숨소리

용인시의 장엄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네



구미(具尾)

함박산 산자락 하나
마을 가운데 있어
거북이 꼬리 닮았다네
녹음이 짙게 후미진 산자락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운치있는 마을일세

대촌의 물넘이 고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 바람 불어
북쪽에 떨어지면 경안천 거쳐 한강이 되고
남쪽에 떨어지면 진위천 거쳐 서해바다로 가니
대촌을 무내미라 하였다네

옥현마을 이백년전
장만이 옥으로 정자지어
옥고개라 하였으나
옥성부원군 은신처를
“옥성군 사는 고개”가 변질된 것이고
청동기 시대 반달돌칼, 방추차 출토된 곳이네

여

백

낙은길
역삼동(驛三洞)



역삼동(驛三洞)

서남쪽 부아산 산자락에
흐르는 금학천 따라
용인대 있으니 승리의 마을일세

역북동에 변암 채재공 묘와
정조대왕 뇌문비 아직 남아 있는데
그님은 어데가고 친제만 남아 있네

건강의 수뇌들 모인
세브란스 병원과 꿈꾸는 인재 모인
용인 고등, 서릉 초등은
용인의 미래 이끌어갈 주역들
푸르게 일어서서 기침을 한다

관목마을 구룡사와 구과리 스님
구석진데 있다하여 구석말
구성(九星)말로 변음 되고

조선시대 대로가에
나그네 쉬어가던 낙은(樂隱)마을
나그네를 돕는 봉사정신 큰 고장일세

한국전쟁 피난민 수용소 건립하고 도우니
옛 조상들의 남을 돕는 봉사정신
그대로 본 받은 후예들
하늘도 감동하여
이 땅위에 축복 주었네

역북동(驛北洞)

조선시대 양재도 찰방이
관할하던 금령역원 근처이며
관원이 묵어가던
금령원의 관(館)이 있던곳

구성마을 구룡사 절이 있고
구과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구석진데 있다하여 구석말이라 하던 것이
삼문 사령부가 들어서서 구성(九星)이라 하였네

신성마을 한국전쟁 때
피난민 수용소 1952년
32채 가옥 건립하여
수용소 만들었으니
전쟁의 아픔 상처받은 곳이네
우리 후예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의 마을
승리의 마을일세

삼가동(三街洞)

구성면, 수원동, 메주고개 세갈래 길
북서쪽에 화운사 남서쪽에 수덕암
삼가동의 두 날개라네

조선시대 궁방전에
환관내시 살았으니 궁촌이고

떡조현(覓祖峴) 나그네를 돕는 고개
유래로 남아있고
시아버지 호랑이에게 물려 갈 때
며느리 등에 업은 아이를 주고
시아버지 찾았다 하여 찾은 떡(覓)
할아버지조(祖) 떡조현 되었으니
효부 며느리 낳은 고장
효부 열녀문 세워
후손들의 부모사랑 가르치며
으뜸의 고장 만드세



버드나무길
유림동(柳林洞)



유림동(柳林洞)

용인의 관문인 유림동 마을
유방동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용인의 동맥과 정맥의 맥박 힘차게 뛰는
용인시의 관문이로다

새마을 취락 시범단지
문화주택 건축물 현대감각 건축되고
대나무 조립식 낚시대 가내공업 생산지
김태라는 무명 장사
무예를 연마하며 상대를 위협하던 무태곡
김덕정 우물가엔
마을 위해 파놓은 우물
동리 사람 함께 먹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

울창하게 우거진 버드나무
늘어진 가지마다 비가 내리듯
냇가에 섰는 버들아
봄바람이 흔들고 가면
덩실덩실 춤을 추네

밤에는 머리 풀어
미풍에도 흔들리니
정 많은 너의 마음
연약함을 보여 주네

유방동(柳防洞)

유방동 무수막 마을
경안천 흐르고
새마을 취락 시범 문화 주택단지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 들어섰네

대나무 조립식 낚시대 생산된 고장
임진왜란 때 적의 막사 무수히 많아
무수막이라 불렀다네

무태곡엔 무태(김태)라는
무명의 장사 무예를 연마하니
하유곡 뻑뻑한 버드나무
춤추면 신나게 장사의 힘을 돋구네



고림동(古林洞)

고림동 정상고교 학생들은
정상을 향해 달려가니
하늘 아래 높은 탑
별이되어 빛나네

임진왜란 진터 있고
그 흔적 아직 남아 있으니
뼈 아픈 민족의 가슴
다시는 이땅의 전쟁을 없애야 하네

김덕정 부자마을 우물 있어
사시사철 맑은 샘물
마을 사람 가슴속엔
늘 생수가 넘쳐 흐르네

대소산의 산자락이
마을에 앉아 있으니
푸른 숲 맑은 개천
마을 사람들의
큰 꿈을 이루어 주네



학길
동부동(東部洞)



동부동(東部洞)

용인의 동쪽마을
문수산맥 국사봉 만평동 까지 이어져
경안천이 발원한 고장일세
송담대학, 용인초등 있어
인재들의 낙원일세

공설 운동장엔
세계를 이끌어갈
체육의 주역들
이 땅 화려하게 수 놓을
운동의 본산이니
용인 체육인의 꿈
세계속에 빛내리라
금자탑 이루리라



호동(虎洞)

산의 형상

호랑이 누운 모습

억센 기백 닮은 모습

길업 마을엔 지식 많은

사람들 모여

“유정세간(有情世間)

자업자득(自業得)하여

윤회전생(輪回轉生)하라” 즉

인간 세상에는 정이 있으니 이르는 것이요

좋은 업으로 덕을 쌓으면 다시 태어날 때

좋은 생으로 바뀐다는 뜻처럼

마을이 생겨 길업이라 하였네



해곡동(海谷洞)

조판서 한사람이
선친의 묘소 쓰고나서
산수는 수려하고 좋으나
바다가 있어야
자손 만대 길하다 하여
마을에 연못을 파고
바다라 하였으니
그 이름 해곡이 되었네

예전에 별미마을
한양으로 가는 과객
굽등고개 넘어오니
허기지고 배고픈 과객
산채나물 별미중에 별미로다

뒷산 형제봉 즐기
남쪽으로 내려 앉으니
이를 별뢰라 하던 것이
별미마을 되었다네

연화산 기슭에 와우정사
3천여 불상 거느린 보기도문 와불
인도네시아산 동향나무로 만든
길게 누운 대형 좌불
해곡동의 보화일세



운학동(雲鶴洞)

작은 곱등고개 한고개 넘어가면
큰 곱등고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하늘 아래 푸르르게 서 있구나

먹거리 한마당에 모여 앉은 길손들
기쁜일 아픈 설움
서로 달래는 주막거리
술 한잔에 모든 설움
씻은 듯 활짝 웃네

학처럼 생긴 별학 마을
고고한 그 자태
하얀 깃털 행렬하니
산과 들은 온통 별천지네

외어둔(外漁屯)마을에
어득운리(魚得雲里)
물고기가 구름을 얻어
용이 되니 하늘로 치솟은 기백
거부장자 나는 장재미 마을 되었네

마평동(麻坪洞)

마평동 말구지엔
바위틈에 약수터
길가던 나그네들의 목을 축이고
말을 재우며
묵어갔던 곳

삼박곡엔 박씨 세사람 살던 곳
농사 잘되고 산이 아늑하고
산림 무성하니
세가지 잇점 있어 삼박골 되었네



저자

서울출생

호 : 星天

필명 : 이 경

심상신인상으로 문단 등단

아동문예작품상 수상 등단

창조문예 평론부문 등단

한국문협 기독교협 현대시문협 강남문협 이사 한민족문학연구 이사

한국생활문학상 대상(본상)수상

한국강남문학상 수상

서울문예상 수상

시집 : 겨울장미는 춤지않다, 빛을 꿈꾸는 사람, 꿈꾸는 강남길

저서 : 이경 선생님의 아동문학교실

동인지 다수

현 : 강남 대치문화센터시창작 강사

서초구민회관 심상문학 시창작 강사

서원초교 논술 글짓기 강사

용인의 푸른 숨소리 (용인의 길 이름 시문집)

발행인 : 홍재구
저자 : 이경
편집 : 용인문화원 / 용인시 김량장동 133-61
Tel.(031)335-2033 Fax.(031)335-0835
인쇄 : 홍익문화사 / 서울시 중구 자동 2가 7-2
Tel.(02)2274-8110 Fax.(02)2271-0951
발행일 : 2004. 12

이 책은 지방비 지원을 받아 발간 되었음

비매품

여

백



03810

9 788987 738246

ISBN 89-877-3824-8